

<지난주 말씀>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성경말씀을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말한 것 같아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 마른 뼈다귀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 뼈가 살겠냐고 묻습니다. 에스겔은 살겠습니까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하니 뼈와 뼈가 맞춰지고 살이 붙고 가죽이 입혀집니다. 그런데 저 존재에게 생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저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라, 에스겔이 말씀대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다면 오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가는 미래, 그것이 나의 응답이고 축복이고 여정입니다. 마른뼈가 살아나듯이 오늘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시작과 끝과 영원을 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잡으란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답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이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복음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답이 있는데 왜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이 믿음을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문제가 계속 파고들어요. 이 믿음이 회복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에 걸려도 괜찮아요. 저는 암 진단 받으면 항암치료 안 받고 살다 갈 겁니다. 문제가 아닌데 뭐 때문에 고치려고 합니까? 생각의 차이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습니까. 왜 염려를 다 맡겨야 합니까? 대적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염려해서 마귀를 쫓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염려하는 자를 찾습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내가 내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인이 사셔서 주인이 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걸 발견하는 것이 나의 영적 다메섹을 찾는 것입니다. 갈등하지 말고 이런 사람 한 명만 나오면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것

을 믿는 한 사람이면 됩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불러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분이 나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터를 굳건하게 하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고민이 될 때마다, 염려가 될 때마다 이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1.베드로의 편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벧후1:1)

베드로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이름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베드로는 베드로가 되기 전에 시몬이었습니다. 사도로서 시몬으로 있던 내가 베드로로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때로는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베드로가 편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한 이들에게 베드로가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앞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벧후1:2)

오늘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앞으로 말미암음이라(벧후1:3)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비밀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금 그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강단의 흐름을 놓치면 안됩니다. 바보 중에 상바보예요.

▶왜 신비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이심을 앞으로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축복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가지고 속으면 안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비밀을 찾아야 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벧후1:4)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뭐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약속 붙잡으란 것입니다. 신비한 능력으로 내게 주신 이가 나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세상의 썩어질 것을 피한다고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세상의 성공을 쫓지 않습니다. 오늘 답을 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벧후1:5-7)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그리스도인답다고 합니다. 내 그릇은 살리는 그릇입니다.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으로 현장에서 플랫폼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파수꾼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현장에 세우게 됩니다. 그게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진 사람입니다.

2.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정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흠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벧후1:8-9)

열매가 없는 자는 맹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맹인처럼 눈 감고 다니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늘 옆에 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졌는데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맹인처럼 사는 것입니다. 맹인처럼 사니까 답이 없고 답답한 것입니다. 내가 맹인처럼 살았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맹인은 눈을 떠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영적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 죄인처럼 삽니다. 죄인은 맨날 잘못했다 하고 회개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 출륙암되었다는 것입니다. 출 노예, 출 포로, 출 속국 이미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죄가 깨끗하게 되었는데도 맹인처럼 사니까 맨날 죄인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벧

후1:10)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은 나의 구원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이 확정을 해야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터지면 또 돌아가는 것입니다. 답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답이 있는데 왜 고민합니까?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벧후1:11)**

이 비밀이 있으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벧후1:12)**

베드로가 너희를 늘 생각한다고 합니다.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앎이라(벧후1:13-14)**

베드로가 죽을 날이 가까워지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형이 죽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죽기 몇 개월 전에 이미 본인이 안될 것을 아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여러분 인생을 정리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흐름이 보입니다.

3.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벧후1:15)**

오늘도 사도가 없고 사역자가 없고 목회자가 없어도 여러분이 이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벧후1:16)**

지금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의 증인입니다. 3년동안 보았어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벧후1:17)**

이게 마태복음 17장의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마16:16을 고백하고도 변화산에서 엘리야도 보고 모세도 보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하나는 주를 위해 짓겠나이다. 그 때 하늘에서 이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때 안개가 걷히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건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산이 베드로에게는 인생 전환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도 전환점이 오지 않았는데, 하늘로부터 이게 확정되는 것을 본 사건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벧후1:18)**

베드로가 직접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벧후1:19)**

더 확실한 예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말씀입니다. 어두운 것을 비추는 등불과 같고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는 것은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벧후1:20-21)**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눈에 본 것보다 들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놓치지 맞기 바랍니다.

〈결론〉

▶예수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잘 몰라요. 예수를 바르게 아는 자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예수를 아는 자입니다. 바울은 이걸 알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린다고 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보고 답다, 다운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이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러면 답을 주면 됩니다. 파수망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교회와 소통시킵니다. 그게 안테나입니다. 그 사람이 망대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열매 없는 자, 맹인으로 살면 안됩니다. 세상 문화에 빠져 살면 안됩니다. 정체성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자는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가 됩니다.

▶예수의 증인 되셔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성삼

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증인은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흐름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성령의 흐름을 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 열매를 맺는 흐름을 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이 강단의 흐름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민할 게 없습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적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염려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가라는 것입니다. 마른 뼈에 말씀이 임하니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확정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빛교회
ζωη φως ἐκκλησία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60-147호

담임목사 : 곽동호

전 화 : 010-5205-4079

E - mail : dhkwak0224@hanmail.net

인생복음상담 : 070-4406-4079